

## ■ 주요 기사

### ○ 유해 생활화학제품 퇴출 관련(3건)

조선	<a href="#">쓰리엠 세정제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</a>
매경	<a href="#">못믿을 세정제·방향제... 발암물질 범벅</a>
경향	<a href="#">'안전기준 위반'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</a>

### ○ 기본소득제 관련(2건)

조선	<a href="#">소득·재산 안따지고 매달 최대 30만원 주겠다고?</a> <a href="#">스위스,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... 핀란드선 시범사업중</a>
----	--

### ○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관련(2건)

중앙	<a href="#">15~39세 "적성·급여보다 안정적 직장"</a>
경향	<a href="#">청년들, 적성보다 안정적 일자리 원한다</a>

## ■ 주요 칼럼 · 기고

### ○ 노조 파업 관련(1건)

동아	<a href="#">[사설]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</a>
----	---

### ○ 임금체불 관련(1건)

한경	<a href="#">[뉴스의 맥] 늘어나는 임금체불, 형사처벌 위주보다 관행 개선 선행돼야</a>
----	---

## ■ 언론별 동향

매체명	주 제		
조선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소득·재산 안따지고 매달 최대 30만원 주겠다고?</a> A8면
		내용	대선이 다가오면서 일부 야권 대권주자가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을 내걸고 있음. 소득·재산·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스위스,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… 핀란드선 시범사업중</a> A8면
		내용	핀란드는 1월부터 국가 단위로 처음 실험에 들어감. 올 1월부터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(약 70만7000원)를 지원.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
	환경	제목	<a href="#">쓰리엠 세정제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</a> A12면
		내용	환경부는 17일 "한국쓰리엠의 세정제와 접착제, 칼자이스의 카메라 렌즈 세척액, 유선케미칼의 손오공본드 등 28개 생활 화학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이 제품들에 대한 시장 퇴출 조치를 내렸다"고 밝힘
중앙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[인구 5000만 지키자] 아빠도 2년 육아휴직…“회사가 도와 주니 애 더 낳고 싶네요”</a> A14면
		내용	'일·가정 균형 우수기업'은 기업 하기에 따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. 오후 6시 칼퇴근, 연속 2회 남성육아휴직 등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[인구 5000만 지키자] “임신·육아 편하게 했더니 자녀 셋 직원이 400명”</a> A14면
		내용	일·가정 균형 우수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들은 “직원과 가족이 행복해지면 회사가 발전한다”고 입을 모음. 기업이 생존하려면 가정의 행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15~39세 “적성·급여보다 안정적 직장”</a> A19면
		내용	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.8%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인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무엇보다 '안정적인 회사'인 것으로 조사. 자신의 적성이나 높은 급여는 이보다 후 순위
동아	노동	제목	<a href="#">돈으로 사는 투쟁?... ‘파업 상품권’ 또 꺼낸 현대중 노조</a> A12면
		내용	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40차례 넘게 파업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만 따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
	노동	제목	<a href="#">[사설]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</a> A31면
		내용	현대중 노조는 2015년에도 파업 참가자 4000여 명에게 전통 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약 2억 원어치의 조합비를 쓴 전력이 있다. 노조 측은 “식사비 조”라고 합리화하지만 ‘돈으로 파업을 산다’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국조실 “고용률 66%로 높아졌다”... 국민체감과 거리 먼 평가</a> A10면
		내용	국조실이 일자리 창출 미흡, 저성장 장기화 등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져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되레 ‘면죄부’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내렸다

매체명	주 제		
매경	환경	제목	<a href="#">못믿을 세정제·방향제...발암물질 범벅</a> A5면
		내용	한국쓰리엠 접착제, 맑은나라 세정제, 폴앤마틴 방향제(싱글룸 디퓨저)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28개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물질이 검출돼 해당 업체들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짐
한경	노동	제목	<a href="#">[뉴스의 맥] 늘어나는 임금체불, 형사처벌 위주보다 관행 개선 선행돼야</a> 33면
		내용	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.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장의 관행을 바꾸고 이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식도 개선돼야
경향	노동	제목	<a href="#">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...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'문자 해고' 통보</a> A10면
		내용	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.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는 “노조 간부들만 콕 짚어서 계약 만료일 당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동탄압”이라고 밝힘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청년들, 적성보다 안정적 일자리 원한다</a> A12면
		내용	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‘2016 청년 사회·경제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청년들은 ‘안정적 회사’(31.0%)를 적성에 맞는 회사(25.6%)보다 더 선호
환경	제목	<a href="#">‘안전기준 위반’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</a> A11면	
내용	한국쓰리엠 욕실용 세정제와 강력접착제, 칼자이스 렌즈클리너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28개 생활화학제품이 퇴출		
한겨레	노동	제목	<a href="#">산은·기은 노조 “공기업 전환은 관치금융 강화하는 퇴보” 반발</a> 18면
		내용	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“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이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는 규제”라고 비판

<끝>